

## 뉴저지 한인 이민역사

# 한인들의 미국정치 1번지 뉴저지의 한민들

## 뉴저지의 두번째 직능단체 ... 뉴저지한인세탁협회

대거 이민시대 21



조종무  
국사편찬위 재외사료위원  
본사 상임고문

### 1994년 창립 ... 1500 회원들의 조직력 바탕 모범단체 보일러 교육,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통해 정보 공유 회원들 권익 위해 의회차원 법안 반대운동도 벌여

1994년 뉴저지에서 두번째 한인 직능단체로 출범한 뉴저지한인세탁협회(The Korean Cleaners Association of NJ)는 1천5백 회원들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26년간 중단없이 활동해 온 모범적인 한인 단체이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세미나를 연 5-6회씩 주최하면서 친목과 펀드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 연말 '세탁인의 밤' 행사를 꾸준히 주최해 오고 있다. 그보다 2년전 창립된 뉴저지한인네



2대 한태희 회장(오른쪽)과 13대 신영석 현 회장

일협회와 함께 뉴저지의 대표적인 직능단체이다.

94년 4월16일 중부 뉴저지 지역 이스트 브런스윅 소재 갈보리교회에서 400여명의 세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김우영 회장을 선출했다. 뉴저지주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1차 보일러 세미나를 열었다. 세탁소 운영의 기본이 되는 보일러 세미나는 갈보리교회에서 145명의 세탁인들이 참석했다. 첫해에 회

원 친목과 펀드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가 Fox Follow Contry Club에서 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회원들에게 업계 동정과 세탁정보를 알리기 위해 월간 협회보 '세탁인 마당'을 창간했다. 협회 활동의 중심점이 될 사무실도 중부 뉴저지 아일슬린에 마련했다.

당시 주 하원 루니의원을 초청해 'Bill 1917-1919'에 대해 토의를 하고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루니법안은 세탁소 뿐만 아니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소들이 땅을 오염시켰을 때 이를 청소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95년 2차 보일러 세미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1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후로 협회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세미나를 열었다. 환경세미나를 비롯해 웨트클리닝, 장비 세미나를 열었으며 보일러 교육은 의무적으로 1년에 두차례씩 주최했다. 그외에도 주정부의 단속과 인스펙션에 대비한 다양한 문제들을 주제로 봄 가을로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 교육에 치중했다.

한태희 회장 시기(2대, 1997년) 회원들의 무료 건강진료를 아가페 교회에서 실시했으며 97년 들어 루니 법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그해 7월 Barton 법안 제안자인 조 바튼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하여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기자회견, 업계 홍보와 지지를 호소했다. 바튼 법안은 땅 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의 업소들은 과거에 오염된 것을 새삼스럽게 끌어내어



창립 초기 협회를 이끌었던 회장들. 왼쪽부터 김우영(초대), 한태희(2,4대), 강봉희 회장(3대)

클립업하지 않고 그대로 물어버리자는 내용이라서 회원들의 호응을 얻은 법안이었다.

강봉희 회장 시기(3대, 99년 3월)에는 미전국클리너스협회(NCA)를 방문하여 루니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아틀랜틱 시티에 거주하던 강 회장은 2시간여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협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성과 책임감을 보여 회원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가 타계하자(2013년 12월1일) 뉴저지한인세탁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한태희 회장이 4대를 중임하면서 협회지를 12면으로 증면 발행했으며 허드슨실업인협회와 공동으로 불우이웃돕기 헌옷 모으기 운동을 전개, 지역사회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협회원 명단이 실린 'New Jersey Cleaner's Guide'를 발간했으며, 그간 심사숙고하던 루니법안은 소규모 세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를 막기로 결정, 3차에 걸친 반대운동 끝에 이를 보류시켜 지지할 수 있었다.

협회는 역대 회장을 거치면서 몇가지 주요행사들을 연례사업으로 정착시켜 실시하고 있다. 매년 연초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이어 때를 가리지 않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협회 운영을 위한 포괄대회, 그리고 연말 '세탁인의 밤' 행사를 매년 주최해 오고 있다. '세탁인의 밤' 행사는 초기에는 클립사이드파크 소재 대원에서 주로 열리다가 요즘에는 중부 뉴저지 소재 에디슨의 파인 매너로 장소를 바꾸어 가며 열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뉴저지 주지사, 뉴욕총영사,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초청되고 있다.

이광희 회장(5대), 한연 회장(6대), 백용선 회장(7대), 민병해 회장(8대)을 거치며 연례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협회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갔다. 역대 회장들이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큰 차질없이 협회가 굴러가는 방식이었다. 장성복 회장(9대) 시기(2010년) 협회 웹사이트([www.kcanj.org](http://www.kcanj.org))가 개설되었고, 채수호 회장(10대) 임기(2012년)에는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초청 송년파티(프린스턴 주지사 공관)에 뉴저지한인세탁협회를 대표해 채수호 회장, 변지상 수석총무 등이 참석했다.

12대와 13대를 연임하고 있는 신영석 현 회장은 뉴저지내 타민족과의 경쟁에 대해

“매출 1백만불 이상의 대형 업체들은 거의 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한인들은 그외의 소규모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서 앞으로는 시야를 좀더 넓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화된 사업으로 병원이거나 호텔, 대형 시니어타운 등에 단체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귀띔했다.

신 회장은 드라이클리닝에 관한 법규들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초기부터 늘 정부와 싸우면서 장악해왔기 때문에 법규상 어려운 점은 별로 없다면서 요즘은 법규를 업그레이드하고 에어퍼밋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협회의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인 보



협회의 주요 행사중 하나인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일러 자격시험은 매년 4-5차례에 걸쳐 주 환경국 협조 아래 실시되고 있으며, 면허시험을 위한 교육도 협회에서 담당한다. 보일러 운용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협회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들을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시험 때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시험에는 98% 이상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회 사무실에서 인스펙션과 공증업무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치 못한 회원들이 도움을 받기에 안성맞춤이다.

협회가 나서서 실천하고 있는 또하나의 사업은 회원 공동구매이다. 가스 및 전기, 크레딧카드, 자동차 보험 공동구매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 서플라이, 은행 용자및 장비, 장의사 등 기타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들이 매월 수천달러씩 절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같은 협회 서비스에 요즘에는 타지역 한인들과 타민족들도 참가하는 추세를 협회는 환영하는 눈치다. 공문을 보낼 때 협회 명칭에서 코리아를 빼고 나갈 때가 많다고 실토했다. 결국은 뉴저지 내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협회가 될런지도 모른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의 역대 회장은 김우영, 한태희(중임), 강봉희, 이광희, 한연, 백용선, 민병해, 장성복, 채수호(연임) 신영석(연임) 회장이다.